

일본 재가불교교단 신뇨엔을 창립한 개조 이토 신죠. 그는 '신뇨밀'이라는 새로운 법류를 만들어 재가불교 종파를 일으켰다.

"사람들에게 도움 되고 싶다"… 이타행으로 대중교화

이토 신죠(伊藤真乘)와 신뇨엔(眞如苑)

현대일본의 재가불교교단인 신뇨엔은 1936년에 개조(開祖)인 이토 신죠(伊藤真乘, 1906~1989)와 그의 부인이면서 영조(靈祖)인 이토 도모지(伊藤友司, 1912~1967)에 의해 창립돼 올해로 88주년을 맞이했다. 이토 신죠는 1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는 일본밀교 진언종(眞言宗에)서 출가불교의 엄격한 수행을 마치었으나 재가불교의 길을 선택해 밀교의 수법(修法)이나 의식에서는 출가불교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재가에서의 신앙생활과 수행을 존중하는 교단을 확립했다. 이후 1967년에 영조, 1989년에 개조가 서거함에 따라 현재의 원주(苑主)인 이토 신소(伊藤眞聰, 1942~)로 법통이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쿄도 다치카와(立川)시에 총본부가 있으며, 한국, 미국을 비롯해 23개국에 약 130개의 사원이 있다. 현재 전 세계에 약 100만 명(일본에 90만 명)의 신도가 활동하고 있다.

이타심으로 출가수행 나서

개조 이토 신죠(이하 '신죠'로 약칭)는 1906년에 일본의 야마나시(山梨)현에서 태어났다. 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예술적 감성이 풍부했고, 동서양의 다양한 학문과 더불어 사진이나 라디오, 과학 기술에도 많은 흥미를 지녔다. 그의 가계는 불교 신심이 돈독했으며 특히 대대로 '보제이쇼(病筮鈔)'라는 역학이 전승돼 왔는데, 신죠는 부친으로부터 이를 배우게 된다. 20대 초에는 다치가와의 비행기 제작소에 항공 엔지니어로서 일하면서 한편 '보제이쇼(病筮鈔)'에 근거해 사람들의 고뇌 상담에 응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결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서원이 확립된 것이다.

이후 신죠는 1936년에 30세의 나이로 진언종 다이고파 (醍醐派)의 총본산인 교토의 다이고지(醍醐寺)로 출가 득도했다. 그리고 엄격한 수행을 거쳐 1943년 37세에 진언밀교의 전통법맥인 혜인권정(惠印灌頂)과 금태양부전법권정(金胎両部伝法灌頂)을 이어받아 대아사리(大阿闍梨)가 된다. 아사리란 밀교에서 깊은 교법을 닦아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신죠는 1948년에 진언종으로부터 독립된 '마고토 교단'을 설립하고, 이를 1953년에 '신뇨엔'으로 개칭, 종교 법인으로 인가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그는 진언밀교에 출가 수행한 후에 '신뇨삼매야류(真如三昧耶流)'라고 불리는 '신뇨밀(真如密)'의 새로운 법류를 만들어 하나의 재가불교 종파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현대일본의 불교사에서 '개혁자'로 평가받고 있다.

재가자도 깨달을 수 있다

신죠가 재가교단을 설립하게 되는 배경에는 '보통 사회생활을 하는 재가신도도 수행과 정진을 통해 불성을 닦아서 출가승과 같은 깨달음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확신은 특히 석존의 최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대반열반경〉과의 만남을 통해 형성됐다. 신죠는 1956년부터 교단의 기관지에 열반경의 해설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다음해부터는 새로운 본존으로 대열반상의 근각에 들어갔다. 그는 이때를 전후로 〈대반열반경〉을 교단의 소의경전으로 삼고 새롭게 교학을 구축하게 된다.

신죠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열반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파악했다. 우선 '여래상주(如來常住)'로, 불타=여래와 불법은 불멸이고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으로, 살아있는 것은 모두 불타=불법에 이를 가능성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천제성불(一闡提成佛)'로 불성과 무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천제조차 불타=불성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



열반상을 조성하고 있는 신뇨엔 개조 이토 신죠.

1936년 이토 신죠를 개조로 창립돼 개조, 日진언종서 엄격한 수행 마쳐 '真如密'이라는 새로운 法流 만들어 '대반열반경' 교단의 소의경전 삼아 "재가자도 발보리심하면 성불" 강조 현대에 맞는 재가불교 교단을 구현 사람인도, 보시, 봉사 등 실천행과 영능자와 대좌하는 접심수행 정진



진언종에 출가해 수행할 당시의 이토 신죠.

그리고 스스로 내재하는 불성을 깨닫고 그것을 향상시키는 수행으로 불법에 도달했을 때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는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불법 한가운데에서 사는 경지이고 환희에 넘치는 세계이다. 이러한 불타=불법이 세계에 드러낸 그대로의 모습이 '신뇨(眞如)'에 다름 아니다.

열반경의 가르침 속에서 모든 사람 즉 일천제까지 포함한 일체중생이 믿고, 서원하고, 수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속에서는 이미 출가나 재가라고 하는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 나아가 석존이 열반에 이를 때, 재가 신도인 춘다의 공양만을 받으셨다는 일화도 누구나 불법을 수지, 상승(相承)할 수 있다는 재가불교의 정당성을 근거지우는 것이다. 신죠는 이러한 열반경 해석을 통해, 보통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재가의 신자여도 부처를 구하는 보리심을 지니는 한, 출가자와 같이 불도를 닦고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대 사회에서 불도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출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죠는 현대에 맞는 불교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재가교단의 형태를 확신을 갖고 추진한 것이다.

신죠는 1936년 30세에 출가해 득도한 이래 약 20년간 삭발하고 승려의 모습으로 지냈다. 그러나 열반경을 해설하던 이 무렵부터 스스로 재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법의를 벗고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더불어 신죠는 이때부터 수많은 조각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본존으로 제작한, 입멸을 앞에 둔 석존이 최후의 가르침을 설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대반열반상이었다. 본래 열반상은 80세의 노령의 임종 장면인데, 신죠는 깨달음을 얻은 성도한 시점의 아주 젊은 면영을 근각했다. 이것은 열반경의 '여래상주'를 형태화한 것으로 법의 불생불멸의 경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진여에 일여하는 길, 자리이타 실천

신죠는 신뇨엔의 제1교리로서, 부처님의 참모습인 진여에 일여(一如)하는 길이 무엇보다 대승이타(大乘利他)의 실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재가불교로서 사회가 곧 도장이라는 자각 위에서 자비의 마음을 기반에 두고, 자타의 연관을 중요시하면서 우선 남을 위하는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삶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또한 대승이타의 정진을 위한 고유의 수행법으로서 '세 가지 실천행'과 '접심(接心)'수행을 강조했다.

세 가지 실천은 사람인도, 환희(보시), 봉사를 가리키는데, 이로부터 진정한 덕이 쌓이고 기쁨으로 사는 경애가 얻어진다고 한다. 이것은 대승불교가 보살의 수행법으로 강조하는 육바라밀을, 신죠가 재가신도들이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집약해 재구성한 것이다. 접심은 불성개발을 위해 신뇨엔 창립 초기부터 독자적으로 확립한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이는 밀교적인 관상(觀想) 수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명칭은 선종에서 행하는 접심과 같지만, 기본적인 차이점은 한 사람이 좌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단의 영능자(靈能者)와 일대일로 대좌해서 행한다는 것이다. 마치 세 가지 실천행이 육바라밀을 재가신도에 맞게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것처럼, 접심 수행도 전통적인 불교의 '계정혜(戒定慧)' 행을 재가에 있으면서 배우고 닦을 수 있게 재구축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뇨엔은 '밀교적인 수법(修法)이 응용된 현교', 또는 '현교적으로 열려있는 밀교'라고 할 수 있다.

신뇨엔 제등호마,
세계평화를
기원하다



프랑스 샤토

'신뇨엔의 제등호마 (齊燈護摩)'
전통을 바탕으로 창시된 신뇨엔의 독자적인 호마



야마나시 신죠지(眞澄寺) 별원

眞如苑 신뇨엔

▶ 해외정사 및 포교소 : 24개국 48개
▶ 한국정사 : 서울·부산·제주·창원
▶ 집회소 : 51개국 930여개
▶ e-mail : shinnyoen@hanmail.net
▶ 서울정사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46 TEL (02)719-6998
▶ 부산정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47 TEL (051)892-6998